

## 수심은 많고 술은 적구나

『주공행장』에 담은 미추의 20년

이진아 · 연극평론가 | 숙명여대 교수

지난 세월 동안 눈치들은 미추의 마당놀이는 전통의 현대화, 전통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칭송하기도 했으나 또한 '대중해탈의 상품화' '미팅극 양식의 저질성에 대한 왜곡'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라. 그저 사립을 술 수게 하는 것이, 시를 짓고 노래 한 지라 읽는 것이 진정으로 기뻐했다면 축환 것을 미추의 작품에 항상 시릴 시는 넘쳐난다. 미추의 창단 20주년적인 『주공행장』에도 그런 향이 가득하다. 불법에 하늘을 지붕 삼아 누운 채 초상불전에 젖어 노래 부르는 아버지, 그 곁에서 같이 베를 깔고 뒹구는 주호의 맑은 웃음은 관객으로 하여금 한참을 장면에 취하게 만든다. 슬퍼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고 쓸쓸해서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불법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끼워서 온다는 주공의 말에 관객도 시니버로 동화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특히 연극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스무 해를 함께 해온 미추에게, 앞으로 더 많은 날을 함께 할 미추의 젊은 세대에겐 희망의 인사를 들려주었다.

2006 04 April

올해로 극단 미추가 20주년을 맞았다. 성년이 된 것이다. 미추를 생각하면 늘 어깨가 들썩이고 마음이 달뜨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늘 움직이는 힘, 늘 꿈틀대는 힘, 늘 살아 있는 힘. 성년이 된 극단 미추가 지난 세월동안 관객에게 각인 시켜 놓은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다.

한국연극사에서 기념할 만한 해를 꼽는다면 1986년도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해 태어나 올해로 성년을 맞이한 극단이 미추 외에도 몇몇이 더 된다. 오늘날까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연극계에서 큰 몫을 해내는 굵직한 극단들이다. 20여 년 전,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차하던 뜨겁고 격렬했던 그해 여름, 우리 연극은 새 삶을 생각하고 새 날을 꿈꾸며 새 살림을 꾸렸다. 절망보다는 희망이, 불신보다는 믿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해 여름 우리 연극계에 새로 태어난 생명들은 언제보다 실하고 영글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의 우리는 보지 못하는 무엇을 20여 년 전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일까?

## 우리 연극 정신을 찾아서

‘우리는 마당을 추구한다.’ 미추의 창단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마당이라 하여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추의 마당은 정신이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놀이 정신이다. 그렇기에 미추의 작업은 전통과 마당놀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실험극도 하고 서양극도 한다. 그러나 항상 마당 정신 하에서 한다. ‘지금-여기-함께’ 하는 연극, 이것이 마당 정신일 것이다. 우리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미추가 고답적이거나 과거 지향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오늘의 관객을 읽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말이다. 언제나 꿈틀대는 극단의 이미지도 바로 이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마당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함께 숨 쉬는 힘 말이다.

우리의 연극정신을 지킨다는 창단 취지는 첫 작품 『지킴

이」를 올리는 자리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많은 극단들 중에서도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극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극단을 새로 꾸리기로 하였다. 손진책 대표는 당시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우리의 연극인지, 누구를 위한 연극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작금의 소비적 연극풍토 속에서 새로운 연극에 대한 관객들의 욕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극단이 되겠다고 자신하고 나선다면, 현실적 어려움은 오히려 창작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지킴이』 공연 프로그램 중에서도), 더불어 창단을 위해 정복근의 희곡 『지킴이』를 선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토로해야 할 참회록”으로서 선택했노라 말한다.

창단 공연을 준비하면서 참회록이라. 그리고 보니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내놓은 것이 또한 통하는 바가 있다. 다음 아닌 행장(行狀)이기 때문이다. 행장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평생을 지낸 행적을 기록한 글이다. 극중 주인공 국주호가 칠십



극단 미추 로고

올해로 극단 미추가 20주년을 맞았다. 성년이 된 것이다. 미추를 생각하면 늘 어깨가 들썩이고 마음이 들뜬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늘 움직이는 힘, 늘 꿈틀대는 힘, 늘 살아있는 힘. 성년이 된 극단 미추가 지난 세월동안 관객에게 각인시켜 놓은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다.

평생을 돌아보며 쓰고 읽는 행장에는 그의 지난 삶이 녹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선가부터 얼핏 극단 미추의 지난 시간과 겹친다. 주호의 삶에 대한 관조가 미추의 그것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의도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극단의 차세대 기둥 배삼식의 시선이 또한 극단 미추와 같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돌아보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행장에는 항상 일정한 수사가 있다. 행장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덕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건은 어느 정도 미화되고 기억은 정리되며 의미는 포장된다. 칠순의 주호가 자신이 겪은 일을 돌아보며 쓰는 행장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극은 행장을 쓰고 읽는 현재의 주호와 실제 있었던 과거 보여주기를 함께 한다. 말하자면 읽어 내려가는 행장과 펼쳐지는 내용이 사뭇 다른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공행장」이 지니는 웃음과 관조의 포인트가 있다.

주호(酒壺) 국대준은 열 살에 귀향을 가 평생을 초야에서 또 옥에서 고초를 치른 거사(居士)이다. 강직한 선비인 듯도 하지만 기실 그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행장은 국주호가 선친을 회고하며 시작된다. 한 세상을 경륜할 만한 학식과 인품을 지니셨으나 은일하며 준엄한 논변과 뜨거운 숨결로 세상을 논하며 사셨다고 행장 속에서 기술되는 선친 국경을 역시 대단한 기개의 선비였나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는 술에 곧드레 취한 채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아들을 끼고서야 세상이 어쨌느니 정책이 어쨌느니 끊어진 예와 성현의 도가 무엇이니 하고 떠들 수 있는 위인이다. 줄리고 지겨워 급기야 터진 어린 아들의 울음을 피붙이가 보여주는 자신에 대한 절절한 이해요, 자신과 같은 마음의 세상에 대한 한 가지 울분이라 믿고 싶어하는 위인이다. 그런 그가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술 때문에 영조대왕이 내린 금주령을 어기게 되고 급기야 어린 아들에게 술 한 동이 남

2006 04 April



사진출처 : 극단 미추 홈페이지(www.michoo.co.kr)

#### 미추의 창단 20주년작인 「주공행장」

「주공행장」에서 술은 인생에 대한 환유이다. 고단한 인생, 고독한 인생, 외길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노래하며 마시게 되는 술은 바로 인생이다. 선비의 정신도 여기서는 술 한 잔이다. 주호의 평생을 건 상소도 술상에 올려진 술 한 잔이다. 술로 세상 괴로움을 잠시 잊고 잠시 숨 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주호의 생각이다. 이럴 때 술은 또한 예술에 대한 은유이다. 외로움을 술 한 잔에 씻을 수 있다면, 잠시 잊고 노래할 수 있다면, 나아가 시 한 수, 문장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이럴 때의 술은 시이고 예술이다. 평생을 남의 시간 읊으며 비록 지금은 그에 기대어서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지만, 언젠가 내 글월 하나 얻고, 외로운 이와 수직하리라는 뜻을 버리지 않았던 주호에게서 한 길을 가는 예술인을, 연극인을 본다.

긴 채 세상을 뜨게 된다.

이제 술에 대한 국경음의 뜻은 어린 주호에게로 이어진다. 선친이 술 마시고 그를 만들었기에 태생부터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호는 아버지가 남기신 술 한 동이를 단숨에 들이켜고, 나아가 왕이 엄포와 함께 내어놓은 술까지 비워 결국 귀향을 가게 된다. 주사(奏事)와 주사(酒邪)를 구분치 못한 주호의 행동이 결국 어린 그를 유배 가게 만든 것이다. 이런 그의 행동은 순식간에 용감하고 기개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선비의 귀감이 된다. 모든 유림과 백성의 뜻을 떨치고 선비의 기개를 잃지 않은 거사로 추앙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기실 주호에게 무슨 소용이라. 주호는 술에 묻은 아버지의 뜻과 삶을 마셔 제 몸에 넣었을 뿐이요, 그 김에 입금이 내놓은 술을 하사하신 어주(御酒)라 여겨 기꺼이 마셨을 뿐이다. 세상이 '대의' 니 '기개' 니 하며 내린 평가와 의미는 주호의 참뜻과 다르다.

이 작가는 참으로 작은 일을 포착하여 의미를 생산하는 재주를 가졌다. 어린 주호가 술에 정신 못 차리고 팔뚝거리며 노기충천한 왕으로부터 유배의 영을 받는 장면은 그림같이 멈춰진 채 오래 동안 계속되며 관객의 뇌리에 박힌다. 그런데 후에 이 장면은 청년 주호의 회상에 의해 다시 꼬집어내진다. 꼬집어내지면서 이번에는 노기충천한 왕이 아닌 어린 주호의 시점에서 다시 회상된다. 그리고 그때 어린 주호는 전하의 '꿀떡' 침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전하의 외로운 얼굴을 알아보았다고, 그래서 하염없이 그를 보며 생각했노라고, 외로운 분이구나 라고, 오호라, 팔뚝거리면서 뻥히 왕을 바라보던 맹랑한 주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관객이 속없이 웃어버렸던 바로 그 시간이 주호의 운명이 정해진 시간이었구나. 주상의 외로움 달래고자 한잔 술을 권하는 것이 주어진 운명이라 믿게 된 바로 그때였구나. 주호의 회상은 이렇게 관객의 회상까지 끌어들인다.

사실 술 한 잔에 담긴 뜻은 심히 우직하며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의미란, 진실이란, 거대하게 포장

되고 멋진 수사로 말해져야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소박한 정리(情理)로 나누고자 했던 주호의 평생의 염원, 다소는 무모하게 보이는 임금과의 술 한 잔이라는 그의 뜻이, 그 한결같음과 정성으로 인하여 극의 말미로 가면 점차 저릿한 감동이 된다. 한결같음에는 항상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대한 의미란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만들어 놓는 것일 뿐, 진실이란 보기보다는 작고 초라한 것은 아닌지, 세상의 평가란 이런 작고 단단한 진실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 사람 사는 일에 대하여

「주공행장」에서 술은 인생에 대한 환유이다. 고단한 인생, 고독한 인생, 외길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노래하며 마시게 되는 술은 바로 인생이다. 선비의 정신도 여기서는 술 한 잔이다. 주호의 평생을 건 상소도 술상에 올려진 술 한 잔이다. 선비 정신에 대한 풍자라고? 그렇게 본 들 어머하랴. 사실 인생의 술 한 잔이 그보다 못한 것은 또 무어나.

술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도덕을 어지럽힌다고 믿는 것은 영조대왕의 생각이다. 술로 세상 괴로움을 잠시 잊고 잠시 숨 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주호의 생각이다. 이럴 때 술은 또한 예술에 대한 은유이다. 외로움을 술 한 잔에 씻을 수 있다면, 잠시 잊고 노래할 수 있다면, 나아가 시 한 수, 문장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이럴 때의 술은 시이고 예술이다. 평생을 남의 시만 읊으며 비록 지금은 그에 기대어서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지만, 언젠가 내 글월 하나 얻고, 외로운 이와 수작하리라는 뜻을 버리지 않았던 주호에게서 한 길을 가는 예술인을, 연극인을 본다.

바로 미추의 연극 작업이 겹쳐진다. 오늘의 연극이 큰 대의를 이루거나 혁명을 주도하지는 못해도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할 수”(『허삼관 매월기』 공연 프로그램 중에서) 있다면, 사람 사는 데에 노래 하나, 웃음 하나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연극의 힘이요,

존재 의미인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논자들은 미추의 마당놀이 이는 전통의 현대화, 전통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칭송하기도 했으나 또한 ‘대중취향의 상품화’ ‘마당극 양식의 저항성에 대한 왜곡’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대중과 민중이 다르다고 풍자와 놀이에 갈림이 있다고 잣대를 들이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런 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랴. 그저 사람을 숨 쉬게 하는 것이, 시름 잊고 노래 한 자락 얻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했다면 족한 것을.

그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미추의 작품엔 항상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것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젖게 한다. 「주공행장」에도 그런 향이 가득하다. 봄밤에 하늘을 지붕삼아 누운 채 춘상(春想)에 젖어 노래 부르는 아버지, 그 곁에서 같이 배를 깔고 땡구는 주호의 맑은 웃음은 관객으로 하여금 한참을 장면에 취하게 만든다. 슬퍼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고 쓸쓸해서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봄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까워서 운다는 주공의 말에 관객도 시나브로 동화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산다는 것은, 특히 연극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스무 해를 함께 해온 미추에게, 앞으로 더 많은 날을 함께 할 미추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의 인사를 보낸다. 